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 박경미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20-750)

전화 : 3277-3278~9 / 팩스 : 312-2062 / http://eiwts.ewha.ac.kr / E-mail: E600067@ewha.ac.kr

권두언

사순절 어느 날에

정희성

기독교학과 교수

얼마 전 추운 겨울날, 현경의 출판 기념회에서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란 책을 샀다. 현경은 꼬박 일 년 동안 열개도 넘는 세계의 이슬람국을 여행하여 그곳의 다양한 이슬람 여성들의 삶과 고민과 행복에 대해 이 책에 기록하였다. 신비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스페인, 모로코,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예루살렘 등 현경과 함께 세계의 이슬람 문화를 여행하고 이슬람 여성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현경의 책에 드러난 그녀의 삶의 진정성에 감동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기까지!” 씨받이의 딸로 태어난 현경은 가부장제와 전통교리가 가득한 한국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이기엔 꺾끄러운 존재였다. 젊은 시절 현경은 이에 분노하듯 과감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초혼제를 행하며 전통 기독교에 온몸으로 절규하고 반란하는 듯했다. 그런데 신이 넘은 현경은 이제 차분히 기독교를 꺼안을 뿐 아니라 타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승화한 듯 9.11테러 이후 범죄 집단으로 몰리고 철저히 대상화된 이슬람세계를 보듬는다. 그리고 세계의 이슬람 여성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삶과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게 한다. 현경이야말로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정진 끝에 예술적 정지에 다다른 세계의 살림이스트인 것 같다.

“맛과 멋과 슬기의 미학적 여정!” 국문학자 천이두는 오랜 수탈과 외세 침략의 경험 때문에 한국 여성의 한은 본래 ‘설움의 텅어리’, ‘아무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과 같이 부정적이고 퇴영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의 ‘삭임’의 과정을 통해 한을 ‘증류한 연후의 맑은 물’, 혹은 ‘고요한 관조 아래 승화된 경지’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한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고도의 정신집중과 불퇴전의 정진으로 미학적, 미학적, 윤리적 가치인 ‘맛’과 ‘멋’과 ‘슬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사순절 기간, 과거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지난한 삶의 고통에 신음하는 오늘날의 한국 여성들도, 현경과 같이 또 우리 한국 선배 여성들과 같이 자신의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적 정진의 길에 서 있으면 한다. 한은 그 어두운 자락만큼이나 밝은 자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거의 무한대의 빛깔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생의 굽이굽이 수효만큼, 질곡의 깊은 마디만큼 수백수천의 아름다움을 발하는 한국의 여성들을 올 해 사순절에 기대해본다.

서 평

한미 FTA의 진실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를 읽고

정 해 진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신약학)

오는 3월 15일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다. 협상이 개시된 후 근 6년 만의 일이다. 이렇게 발효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역진방지(ratchet)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단 독소조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무언가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이 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리라 예상되는 농민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만조스러운 대비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없는 한, 한미 FTA 발효는 그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사실 한미 FTA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농축산업과 제조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의료, 공공서비스(물, 전기, 가스 등), 지적재산권, 금융 및 투자 등 너무도 광범위해서 한국사회의 거의 전 영역을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에 없는 개방의 규모나 범위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미 FTA를 우려하는 양심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꾸준히 지적했듯 한미 FTA는 관세를 인하하여 양국 간 무역을 늘리자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법률적 조약'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호

도하는 측면이 있다.

한미 FTA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해 온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재천(전)의원은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한미 FTA의 초법률적 성격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그때그때 절박한 필요에 의해 저자가 했던 신문기고와 인터뷰, 좌담을 묶어 펴낸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도 한미 FTA의 '초법률적' 성격을 고발하는 제2장이다. 한 예로,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PA) 법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자국의 법과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는 반면, 우리는 100여 가지가 넘는 법률 개정과 수백 가지의 제도 변경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한미 FTA는 법률을 넘어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자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119조 2항은 특히 중요하다. 이 조항에서 드러나듯 대한민국 헌법은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강자와 약자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제조업과 농어업의 조화 등 공익적 가치를 철저히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다.

결국 한미 FTA는 공익적 가치를 이윤추구라는 사익과 조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시도들을 차단한다. 가령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을 위한 보호정책들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 정책은 불가능하다. "자유화를 향해서 투자자의 이익이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사용할 수 있되, 규제를 향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정부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진방지조항의 본질이다. 또한 '기대' 되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제도나 조치가 있을 경우, 모든 투자자는 ISD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처럼 한미 FTA가 "경제체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의 정책 공간을 위축시키고 또 정책수단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다른 학자들도 한미 FTA가 가져올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지적한 바 있다.¹⁾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미 FTA는 경제시스템은 물론 사회구조 전체를 크게 바꾸게 될 중대한 방향전환임이 분명하다.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부대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공동체적 가치의 소산인 헌법 질서를 방기하고 한미 FTA가 우리에게 남긴 선택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라는 오직 하나의 길뿐이다. 중요한 물음은 이런 전환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재천의 말처럼 이 땅이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나라일진대 그런 결정권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양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결여한 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런 근본적인 물음은 차치하더라도, 한미 FTA로 인해 닥쳐 올 위험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모든 경제주체들 간의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문제만으로도 한미 FTA는 그 정당성을 잃는다. 대표적인 낙농국인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중 GMO 농산물 문제가 대두되자 국민투표를 통해 반대여론을 확인하고, 곧 협상을 중단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 6년간 한미 FTA 협상과 타결, 비준 동의안 처리 및 발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사를 어느 만큼이나 반영했는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도 많은 시민들이 한미 FTA를 현실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의 입에서 한미 FTA 폐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이 '한미 FTA 폐기만이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통감한다면,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로서가 아닌 진정한 노력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발효를 앞둔 지금, 저자 서문에 담긴 이 문장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이혜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메이데이, 2006), 77.

강연회 참관기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을 꺼야 할 바로 그 순간

변 경 원 (기독교학과 박사 졸업, 기독교윤리학)

들어가면서

예년과 달리 영하 15-16도까지 내려가는 유난히 잦은 한파가 올 겨울 우리의 몸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내복을 껴입고 두꺼운 외투를 걸쳐도 땀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따라 예년에 비해 추운 건물과 지하철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썰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9.15 순환정전사태'라는 초유의 경험을 한 정부가 전력 수급을 염려하여 내놓은 대책이다.

현대인에게 전기는 생명과도 같다. 전기가 없다면, 산업 시설은 모두 가동을 멈추어야 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다면,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은 어렵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이런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을 지도 모른다. 지난 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없었다면, 일반 시민들은 위와 같은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을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화석 연료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는가? 우리는 원전을 이런 전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안전한 청정에너지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27일~29일 3일 간 "원자력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열린 여성신학연구소 심포지움은 원자력이 결코 안전하고 청정한 전력 수급을 위한 수단이 아

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심포지움은 원전 문제는 바로 '핵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심포지움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원전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경계의 호소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은 허구란 말인가? 그럼 이 심포지움을 통해 드러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자.

안전한 에너지라는 신화의 붕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가공할 만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공포를 불안으로 연결시켰다. TV 화면을 통해 접하는 쓰나미는 이웃의 아픔이지만,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과 몸을 위협하는 사태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1986년 4월 체르노빌이 내뿜은 '죽음의 재'는 체르노빌 인근을 영구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화석화된 도시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유럽 각국으로 번져갔다. 1기가 파괴된 체르노빌의 파괴 효과가 이룰진대 4기가 망가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마저 두려울 정도의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호흡과 피부 혹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 축적되는 '내부피폭'의

문제이다. 대기와 토양과 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호흡과 먹이사슬을 통해 내부피폭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 사실이 된다. 이러한 내부피폭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그러므로 결국 현재 피폭을 당한 사람들 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원자력체제, 무엇이 문제인가?”의 제목의 강연으로 심포지움의 포문을 연 녹색평론 발행인 김중철은 원전 문제에서 가장 난제 중의 난제는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저준위 핵폐기물조차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수십만 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핵폐기물의 방사능이 소멸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과 장소가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원전을 왜 각국 정부들은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선구적 학자들이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의 신화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각국 정부들이 원전을 고수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 둘째 날 “원전과 생태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라는 제하에 강연한 문규현 신부는 그 이유를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로 일갈한다.

“핵발전소의 시조는 바로 원자폭탄, 즉 핵무기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다른 이름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DNA는 같다. 이를 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핵물질로 무기를 만들든 핵에너지를 만들든, 또 실전에 쓰든 실험 삼아 쓰든, 의료용으로 쓰든, 무섭고 두려운 핵물질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물질의 반생명적 본성을 줄이거나 무해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 노력도 부질없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핵폭탄 피해를 입은 일본

이 핵에너지 기술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확장한 이면에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플루토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된다.

이대 기독교학과 장운재 교수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 대신 ‘핵발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념적 표상이 감추고 있는 마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핵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력수급을 위한 청정에너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말론적 상상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악마적 에너지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대안 없는 대안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서도 밝힌 대로 핵폐기물의 문제이다. 첫날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동국대 김익중 교수는 그 중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다. 하나는 영원히 안전하게 묻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처리를 하더라도 고준위 폐기물의 양은 줄지 않는다. 재처리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일 뿐, 다른 원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핵발전으로 인한 폐기물을 인간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그러므로 불로 인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을 사용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핵발전이라는 인간이 만든 불은 인간이 측정 가능한 시간 속에서는 끌 수 없는 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재앙의 가능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심포지움의 강연자들은 ‘대안 없는 대안’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강변한다. 원자력을 포기하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 우리는 이제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전기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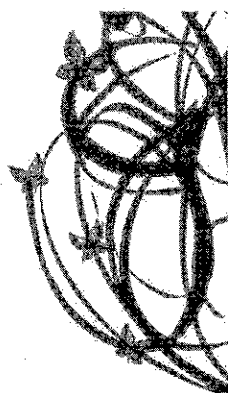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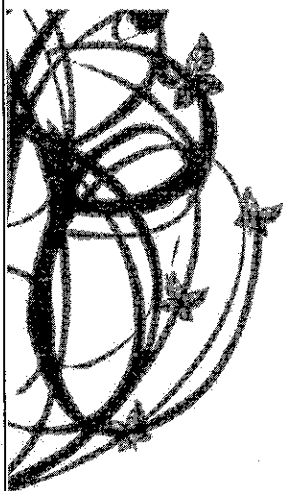
나가면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폐허가 된 마을 사진과 폼페이 유적 속에 화석이 된 인간이 겹쳐진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렇게 현재 이 순간 종말의 경험을 하고 산다. 종말이 역사적 시간의 종언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재해를 통한 대량 인명 사상은, 죽어야만 되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 겪는 실존의 종말이 아닌 몸을 통해 체험하는 실질적 종말의 경험이 된다.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종말'에 관한 관념적인 틀만을 얘기하기에는 인류의 위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는 종말과 연결하여 희망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전을 그대로 방치한 채 관념적 희망만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손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희망의 흔적이 아련하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 관념으로서의 희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있다.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직은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푸른 바다 앞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식상한 말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시작해야 한

다.' 물질문명의 쾌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음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 살아남는 문제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나치게 과도한 소비 욕망을 포기하고 단순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 그는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그를 찾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핵발전으로 인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몸을 숨길 곳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느님이 나를 찾으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킬 책임을 물으실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다같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핵발전의 불을 바로 지금 꺼야 한다. 심포지움의 강연자들은 모두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2012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핵 안보 정상회의'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53개 나라 정상들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는 이 회의의 진행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반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타인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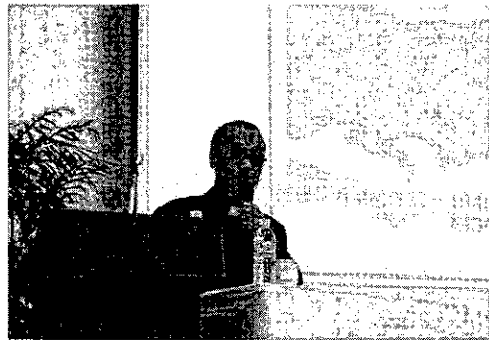


◆ 포토앨범 I ◆

원자력과 민주주의 심포지움(2011. 9. 27-29)



주제강연 중인 녹색평론의 김종철 발행인



강연 중인 생명평화미중를 대표 문규현 신부



강연 중인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



일본다큐감독 카마니카 히토미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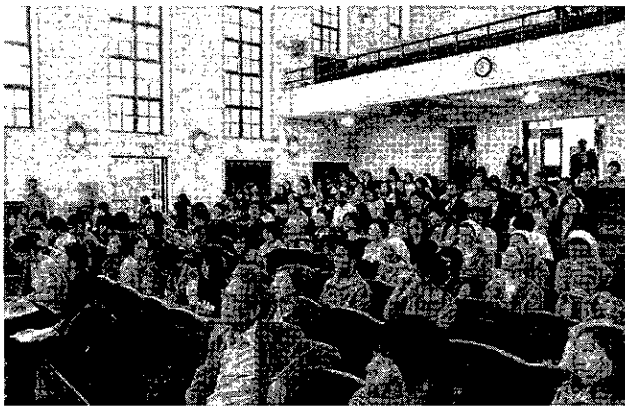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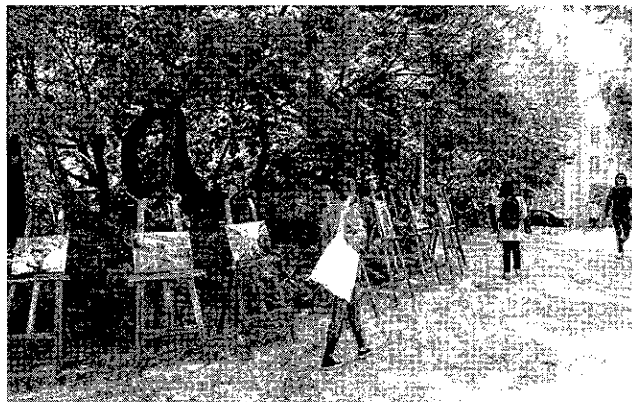
개회인사를 전하는 여성신학연구소장 박경미 교수



강연 중인 경주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경청하는 청중들



중강당 뜰에서 열린
모리즈미 다카시의 반핵 사진전

학술제 후기

한국여성신학회 꿈나무 연구 모임을 마치고

강 희 수 (기독교학과 박사수로, 조직신학)

2010년 여름, 1학기가 다 끝나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성신학회 총무인 백소영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성신학회는 여성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세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스터디를 인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취지를 들어보니 의미 있는 연구 모임이 될 것 같아 권유에 응했습니다. 나름 여성신학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가 창립되고 1985년 한국여성신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의 여성신학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 시대의 여성들의 치열했던 삶과 신학이 전설로 남게 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평등한 위치를 지니지 못한다. 특히 교회 내 여성의 지위 역시 인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선배여성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이제는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제3세계가 아닌 제1세계로 부상되고 있기에, 한국의 여성신학은 제3세계 여성의 아픔을

함께했던 그 시대 이후 새로운 세대의 여성신학자들의 새 시대의 요구와 함께 시대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한국여성신학에 대한 애정을 가진 선배들의 배려와 후배들의 열의가 모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생 3명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 1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한 번씩 만나 한국여성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정리하면서 소감을 나누고 향후 학문의 밑거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주로 여성신학회에서 발간한 1집부터 8집까지의 책들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관심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구 모임을 하는 동안 한국여성신학의 깊이와 넓이에 놀라움을 갖게 되었고 한국여성신학의 역사 및 여성신학적 논의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여성신학의 이론적 신학화 작업은 물론이요 실천의 현장에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공동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사과의 기쁨을 이루게 한 그 뿌리를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우혁 학술부장님의 추천으로 이우정의 『한국기독교여성백년의 발자취』를 정독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 세기를 살아온 한국 기독교 여성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여성사를 통해 근대 기독교 여성들의 세밀한 활동내역을 알 수 있었는데 이후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오늘의 시각으로 술회 시대의 여성을 평가하려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들추어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발견함으로써 지금껏 기독교여성사연구는 특정 인물에 치중되어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신학회 간행물들, 기라성 같은 선배 여성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저자들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같은 주제에도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습니다. 우리는 선배 여성신학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으면서 “과연 여성신학적 용어들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떻게 설정되어질 때 보다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논문과 책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신학의 깊이와 넓이 즉 그 지평이 매우 풍부하기에 선배들의 연구 및 현장에서 실천한 내용들의 풍성함이 후배 여성신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성신학이 신학에서 주변 학문 정도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혁 선생님은 여러 차례 우리 모임을 함께 하시면서 90년대 대학원 시절 여신학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직접 선배 여성신학자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을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니 멀게 느껴졌던 여성신학자들의 글들이 정겨워졌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연구 모임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6월 무렵 우리는 개인별로 관심갖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12월 여성신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의 모임 동안 분기별 및 주제별 발제, 2회에 걸친 학술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각자의 관심주제에 대해 심화를 이룰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선별한 주제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아래 활약한 기독교 여성의 활동, 교회 내 여성차별을 극복하여 새로운 교회론을 정립하는데 노력한 여성안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과 싸우면서 노동의 현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여성의 현실을 끌어안았던 여성신학의 이론과 실천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여성신학 일부분의 관심 분야에 한정해서 연구하였지만 하나의 길로 통하고 있음에 동감하였습니다. 한국 여성신학은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도시적인 삶, 그 안에는 갈라짐과 전쟁, 가난과 억압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명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셨고 세상이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소외되고 가난하며 억압의 현실 한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해방으로 이끄셨습니다. 평화운동에 나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평화를 만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복음으로나 지켜질 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정치적인 분위기일 때 한국의 여성신학자들은 평화운동을 위하여 나섰습니다. 한국 여성신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모순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여성의 해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신학자들이 걸어온 길이 비록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후배 여성신학자들로 하여금 생명, 사랑,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노력을 하도

록 귀감을 보여준 것은 분명 후배들에게 귀한 자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시간 동안 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했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려져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고, 다리를 흔들어 후원해 주신 이화여대
예원신학연구소(연구원들이 바쁜 음표는 우리의 감정을 끌어주었음
내지,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고, 모일 때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나아가서 격려해주신 박경아
회장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용기를 주시면서 마음을 함께해
주신 백도영 총무님, 최우영 학술복지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연구 모임을 통해 한국예원신학에 꿈을 심을 김희숙, 김민걸, 정찬경,
장예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포토앨범 II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한국여성신학회 정기학술제(2011. 12. 17)



발표를 맡은 구술사팀



경청하는 여성신학회원들



한국여성신학회 단체사진

◆ 포토앨범 II ◆

2011년 가을학기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활동



목회상담아카데미 수료식 단체사진(201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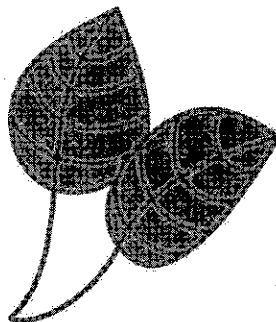
목회상담아카데미 수료식 종강예배



"청소년상담" 공개특강 중인 정희성 교수(2012.2.13)



공개특강에 참여한 청중(2012.2.13)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출판 사업1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2011년 10월 쉐필드 출판사에서 발간

• 출판사업2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의 신약성서편
2012년 3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

• 후쿠시마를 극복하는 한/독 “레시피”

일 사: 3월 9일(금) 오후 3시 30분
장 소: 대학원관 중강당
주 최: 이화여성신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봄학기

(<http://www.epcc.or.kr>)
일 사: 3월 12일-6월 4일 매주 월요일
장 소: 대학교회 106호
개설과목: 기독교와 현대문화, 여성과 목회상담,
발달심리, 집단 슈퍼비전

■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과 신대원 연합 개강예배

일 사: 3월 6일(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학술세미나 Tom Jennings(시카고대학교수) 강연

주 제: Pauline Politics of Salvation
일 사: 3월 21일(수) 오후 2시
장 소: 학관 505호

• 기독교학과 MT

일 사: 3월 23일(금)-24일(토)

■ 신학대학원

• 기독교학과 신대원 연합 개강예배

일 사: 3월 6일(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공동체훈련 및 전공영역탐색세미나

일 사: 2012년 3월 30일(금)-31일(토)
장 소: 이화여대 다락방

■ 교수 동정

• 장윤재 교수 안식년

• 이윤경 교수 구약학 임용



교외 소식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2012 세계기도일예배 보고대회

일 사: 3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연동교회 베들레헴 예배실

•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성들의 평화기행

일 사: 3월 22일(목)~24일(토)
내 용: 합천 평화의집 방문, 비핵평화대회 연대참여 등
문 약 708-4181~3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45주년 예배

일 사: 4월 18일(수)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1311호(종로 5가)

•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Young Women's Forum
일 사: 5월 16일(수)~19일(토)
장 소: 태국 방콕

• 세계기도일 국제본부 총회(WDPIC)

일 사: 6월 10일(일)~17일(일)

장 소: 뉴욕 맨해튼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 2012년 월례 여성신학 포럼

주 제: 한국여성신학의 미래와 교회개혁을 위한 토론회

문 의: 365-4276

■ 한국여성단체연합

•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12 약속해"

일 사: 3월 10일(토) 오후 2시

장 소: 서울시청광장

■ 한국여성신학회

• 신진학자 발표회

일 사: 3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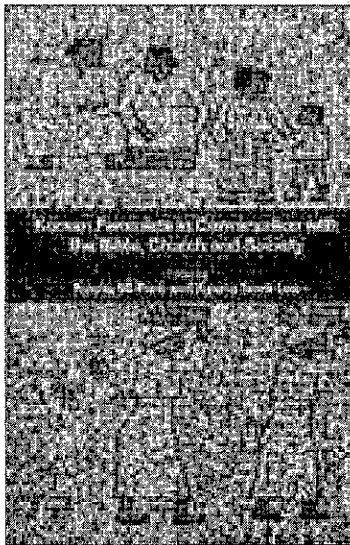
장 소: 이화여대 대학교회 소예배실

• 정기 학술제

주 제: 생명 평화운동과 여성신학

일 사: 5월 26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이화여대 대학교회 소예배실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Hee Sung Chung	1
■ Book Review		
The Truth of Korea-U.S. FTA		
.....	Hye Jin Jeong	2
■ Lecture Review I		
Nuclear Power And Democracy		
.....	Kyung Won Byun	4
■ Photos I		7
■ Lecture Review II		
Korean Women's Theological Seminar		
.....	Hee Su Kang	9
■ Photos II		12
■ News		14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52, Ewhayeodae-gil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eiwts.ewha.ac.kr>

E-mail: E600067@ewha.ac.kr